

솔로몬은 자식을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든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는 말은 젊은 시절에 낳은 자식이 그 부모가 노쇠하였을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화살과 같다는 말의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운 자녀는 화살통에 꽂힌 화살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은 자녀는 부모의 가슴에 꽂힌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부모는 자녀를 통해 인생의 노년에 축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워지시길 기대합니다.

기	도	.....	사	회	자
찬	송	.....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같	이

- 1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 2절**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광	고	.....	사	회	자
주	기	도	문	다	같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예배 후에 맛있는 다과와 함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2023  
가족과 함께 드리는

##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울산원돌교회

## □ 예배순서

\*사회와 말씀강론은 가족 중 대표가 진행합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 다 같이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없는 주의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때 주의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절**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맡겨 벗을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 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 도 ..... 말 은 이

성경봉독 ..... 시편 127편 1-5절 ..... 사 회 자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3.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5.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그 때 당시 가장 화려한 집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집은 화려함과 웅장함 뿐만 아니라 지식과 명예와 엄청난 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근 각처의 다른 나라에서 솔로몬의 집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런 그가 오늘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서 집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본 구절에서 집은 가정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집에 살았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2가지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본 구절에서 자식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업은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물려받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자식은 가정과 가문을 이어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고백합니다. 상급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뜻합니다. 따라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으사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호와와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으사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 세상의 유형자산을 물려주기 전에 앞서, 천국 무형자산 [믿음]을 먼저 물려줘야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자녀를 통해 부모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때 당시 전쟁은 창이나 활이 주무기였습니다. 만약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떨어지면 그 장수는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